

사람들은 도시에 지쳐 있다. 누구나 한번쯤 농촌에 내려가 내 손으로 일구는 밭을 꿈꾸어 본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돈, 주거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농촌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도시에서도 푸르게, 푸르게 사는 법이 있다. '귀농'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농촌에 가지 않아도 직접 땅을 일구고 그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일은 멀리 있지 않다. 푸른 삶으로 가는 가까운 길을 소개한다.

(옥상에 활짝 핀 김천우·안혜숙 부부의 웃음꽃)

옥상에 녹색 빛이 가득하다. 상추며 파, 보리 등이 맘껏 피고 자라 있다. 주위를 둘러싼 고층 아파트에 반기를 들 듯 낮게, 그러나 강하게 뿌리내린 이곳 은은평구 신사동에 사는 김천우(64)·안혜숙(54) 씨 부부의 텃밭이다. 처음부터 텃밭을 가꾼 것은 아니었다. 1991년 지금의 주상복합건물로 이사를 오고 옥상 10여 평의 남는 공간에 운동 목적으로 탁구대를 설치했다. 3개월 뒤 텃밭을 꾸려보자는 남편 제안에 옥상 살림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옥상으로 흙 퍼 나를 때가 가장 힘들었죠. 온 식구가 다 매달렸어요. 해보자 했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어려웠죠. 물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게 보통 신경쓰이는 일인가요?”

부인 안혜숙 씨는 지금이야 귀엽게 보이지만 처음 배추벌레를 잡을 때는 색깔 구분도 안가고 징그러워서 손으로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지금은 남편이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고 안씨는 벌레를 잡거나 잡초 뽑는 일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재배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부부는 농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연 속에 가까이 사는 것 같아 즐겁다.

“이사 왔을 당시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다 낮은 집들뿐이어서 옥상에 올라오면 동네 산이 바로 보여서 좋았는데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로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텃밭이 있는 게 많이 위안이 돼요. 굳이 농촌에 내려가지 않아도 밭 일구는 기쁨도 있구요.”

한 바퀴 둘러보니 부추, 대파, 꽃상추, 치커리, 보리,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샐러리 등 10종이 넘는다. 시장에 가면 비싸게 주고 사는 걸 가족이 먹고도 남아 주변 사람에게 나눠준다. 부부는 벌써 주말에 교회에 가져갈 것들을 준비해 놓느라 분주하다. 특히 신경 쓰는 것은 퇴비다.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고추에 화학비료를 써보기도 했지만 독해서 그런지 죽고 나서는 천연비료만 고집한다. 퇴비는 음식쓰레기를 모아 겨우내 썩힌 후 흙을 섞어서 이듬해 봄에 쓰는 방법으로 한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큰 복이라 여긴다.

“김장철에는 무, 배추도 직접 길러서 해요. 화분에 심다보니깐 공간이 부족해 무는 위로 올라온다니깐요. 흙으로 다시 다독여주고 해서 매년 스무 포기씩 담가요. 아삭아삭하고 얼따나 맛있는데요. 급하게 반찬 필요할 때는 상추 따다가 쌈장에 찍어먹기도 하구요. 불쑥 커서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또 경제적이잖아요.”

지금이야 전문가 못지않은 노하우도 생겼지만 김씨 부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고추를 키워본 것이 전부다. 해가 나면 광합성이라는 건강한 거름이 있어서 좋고, 비가 오면 흙이 젖어 잡초를 쉽게 뽑을 수

푸른 삶으로 가는



가까운 길

작은 귀농

• 집 옥상에서 작은 귀농 실천하는 안혜숙 씨.





시장에 가면 비싸게 주고, 사는 걸... 가족이..
 먹고도, 남아 주변 사람에게 나눠준다..
 부부는... 벌써 주말에 교회에 가져갈 것들을
 준비해 놓느라...분주하다.

있어서 좋다. 텃밭 덕에 이래저래 즐겁다. 아직도 손이 많이 가지만 도시에 살면서 매일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게 취미가 돼버렸다며 활짝 핀 꽃상추만큼 부부는 환하게 웃는다.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에는 주말농장이 많이 발달돼 있다. 주로 서울 근교에 있는 땅을 분양받아 이름 그대로 주말에 찾아가 가꾸는 것이다. 일일이 애쓰지 않아도 땅을 분양해 주는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 공간을 활용해 간단한 텃밭을 만들어본다면 웰빙으로 쓰고 있는 '녹색 인테리어' 로도 한몫 하겠지만 직접 가꾸고 키우는 기쁨의 효과는 가늠할 수 없다.

우선,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준비하자. 좁은 공간이라도 이곳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의외로 여러 가지다. 감자, 고구마, 고추, 당근, 상추, 시금치 등 주로 농약을 걱정하며 사먹는 것들이다.

시금치는 봄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고, 가을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심는다. 비 온 뒤에 줄뿌림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밑거름만 충분히 주면 다른 작물보다 손을 덜 주고도 가꿀 수 있다. 한 달 반 정도면 다 자라서 먹을 수 있는데 특별한 병이 없지만 병든 것은 뿌리째 뽑는 게 좋다.

상추는 생육기간이 60일이다. 봄·가을에 씨앗을 뿌리며 키우기가 쉬워 텃밭 초보자에도겐 필수 작물이다. 시금치와 같이 적당한 밑거름으로도 잘 자라며 밑에서부터 잎을 따먹는 것이므로 빗물로 흙이 튀지 않게 신문지를 깔아두어야 한다. 이 방법은 잡초 발아와 흙의 건조를 막는 데 유용하다.

대파는 충분한 밑거름과 웃거름을 필요로 한다. 3월에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씨앗을 흘뿌리고 가을부터 수확하거나 가을에 심어 다음해 봄에 수확한다. 퇴비, 씨앗, 흙 순서로 깔고 위에는 신문지로 덮어 마르지 않게 한다. 제대로 자랐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거두어 먹는다.

부추는 '게으른 사람의 작물'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번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10년을 자라고 끊임없이 수확해 먹을 수 있다. 밑거름과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퇴비는 흙과 함께 섞어 뿌려준다. 여러 해 자라면 뿌리가 얽힐 수 있으므로 약한 뿌리는 거두어들이고 강한 뿌리만 한 묶음으로 다시 심는다. 잎의 끝을 잘라주면 뿌리를 잘 내린다.

새싹채소는 흙과 비료 없이 물만으로 자라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활용해 재배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재배 용기를 구하지 못하면 대신 얇은 대접에 물에 적신 휴지나 면을 넣고 키워도 된다. 이 곳에 씨앗을 겹치지 않게 한 겹 깔면 하루 이틀 후에 씨앗이 발아하는데 물이 탁해져도 사나흘에 한 번만 갈아준다. 보통 일주일쯤 지나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고 뿌리는 잘라내고 먹는다. 브로콜리싹, 무싹, 옥수수싹, 배추싹 등이 있으며 종류마다 영양이 다르다. 주로 비빔밥에 넣어 먹거나 마요네즈에 찍어 생으로 먹는다.

작은 밭을 만들어 직접 재배하는 일은 까다롭지 않다. 흙과 물, 정성이 제일이다. 도시 속에 살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텃밭'이라는 제안을 해본다. 도시 구석구석 자연이 깃든 것처럼 집안 곳곳에 그 자연의 씨를 심는 일은 도시에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취재 홍이현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홈페이지(www.refarm.org)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